

**금주일언** 항상 법이 있는 곳을 보고 계율을 보호하여 밝음을 삼으면 진권을 이롭게 하여 무리를 중에서 길하고 상서롭다  
(법규경·계신품·93절)

# 東大新聞

발행인: 송정고이길  
편집장: 송정고이길  
주국: 송정고이길  
주필: 송정고이길  
편집: 송정고이길  
출판: 송정고이길  
구독: 송정고이길  
주소: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평동3가 26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1 ☎770-2057

제1218호

(주간)

199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3월10일 (월요일)

1

## ‘박성배·신경림·조정래 강단에 선다’

### 만해 석좌교수로 초빙... 많은 학생에게 도움 될 듯

원효사상의 대가인 박성배(불교학) 교수의 석좌교수 임명식이 지난 6일 총장실에서 치루진데 이어, 그동안 설로만 나돌았던 작가 조정래씨와 시인 신경림씨도 본교 만해석좌교수 초빙제 의를 수락해 이번 학기부터 이들 3명이 본교강단에 나란히 서게 됐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으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조교수는 본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농부’로 알려진 신교수는 본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문학부 석좌교수로서 시·소설의 창작에 관련된 과목을 맡아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석좌교수로 초빙된 뉴욕 스토니브룩주립대학박사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2·3·4교시에 동국관 1.301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불교학과 박사과정에도 과목이 개설돼 강의를 하게된다. 본교 철학과를 졸업한 박교수는 본교와 뉴욕주립대에서 ‘국제원효학회’를 발족시키는데 공헌했으며 세계적으로 원효사상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만해 석좌교수제’는 만해 함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해의 불

교·문화적 업적·특정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인물을 초빙대상으로 한다. 이번 만해 석좌교수 초빙의 실무를 담당한 홍기삼(국어국문학)교수는 “뛰어난 창작능력과 함께 ‘만해’ 이미지에 부합되고 본교를 졸업한 조정래씨와 신경림씨의 초빙을 총장에게 건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으며, “이들의 수업을 많은 동국인이 접할 수 있도록 본교 학생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도 고려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구총장은 이와관련해 “조교수와 신교수의 민족문화적 삶은 만해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미국·일본등지에서 불교대학 석좌교수를 자주 초빙하여 세계적인 불교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초빙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석좌교수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인지도가 높고 창작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수로서의 자질도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석좌교수의 특성상 학부강좌보다 교양강좌에 강의하는 것

이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해석좌교수’는 한국어문학부의 강좌만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뜰이나 교수가 부족

한 국문과에서 이번 석좌교수 초빙으로 인해 신규교수 충원에 다소 소원해 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소 획기적인 이번 석좌교수초빙

이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 많은 동국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태훈 기자)

이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 많은 동국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태훈 기자)



◇ 지난 6일 총장실에서 박성배 교수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 보리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가능성이 보이는 곳을 향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그런 사실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인간의 끊임없는 의욕과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인류의 행복과 문명을 증진시켜온 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인간에게 그 이상의 공포와 불행

## ‘혼돈’의 죽음

을 안겨준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

최근 영국의 복제 양 탄생 발표에 이어 미국의 복제 원숭이 공개를 계기로, 생명복제에 관한 논란이 격화될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토막토막 알려졌던 유전자 이동에 관한 연구가 여기까지 이르러, 이제 인간복제의 가능성까지 공언되고 있는 현실은 기묘 충격을 넘어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과학기술이 지니는 두 칼날과도 같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반영하듯, 생명복제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이 통제를 벗어나, 마침내 생명복제의 최종단계라 할 인간복제까지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에서 기대할만한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자식을 갖겠다는 불임 부부의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 등이 그 대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을 해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기술적 조작에 의해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복제해내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곧 대자연의 질서, 법칙의 교란이며 파괴이다.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 외에도, 기술남용의 우려 및 현실적으로 부처지계별 기술과 상충운 리의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발생 등 그 해악과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까운 원숭이의 복제 성공으로, 인류의 재앙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끝 간 데를 모르는 욕망은 지금 가지 않아도 될 것까지 내달고 있다. 그것은 마치 장지에 나오는, ‘혼돈’을 죽게 만드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혼돈은 있는 그대로의 법칙이며 평화로운 자연이다. 우주 남쪽에 사는 속과 북쪽에 사는 홀이 선을 행하고자 중앙에 사는 혼돈의 얼굴에 이목구비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둘이서 열심히 여섯 개의 구멍을 뚫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멍을 뚫었을 때 혼돈은 죽고 만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선을 앞세운 생명복제의 기술경쟁은 선진국들의 이기심에 찬 또다른 전쟁임에 분명하다. 그것이 결국 인류를 재앙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봉춘  
불교문화대 교수

## 동우·채란 장학금 수여식 가져

### 총 2천 7백만원 30명에 지급

총동창회(회장=황명수) 산하 동우 장학회는 지난달 24일 오전11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총석구 총장을 비롯한 황명수 총동창회장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 12명, 경주캠 8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오늘(10일) 계산관에서 여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채란장학금이 10명에게 각각 70만원씩 수여된다.

동우 장학금 수혜자와 채란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동우장학금=정일섭(불교4), 최용식(철4), 김근욱(수4), 김명환(법3), 류해숙(사회4), 조문기(경상학부2), 권미조(식자3), 양경이(공학계열2), 장재혁(체교4), 조민(연영4), 김형진(신방2), 이상호(정보산업대학원 3학기), 정석운(불교2), 김학원(사회복지4), 서정호(사회체육3),김정은(전산통계4), 김창

현(정보산업4), 남계동(법3), 강보영(의1), 주선희(관경2) 이상20명.

△채란장학금=이명진(컴공4), 김진주(역교4), 민경원(영문3), 김민정(지교4), 양희선(국교4), 임선향(지교4), 김세희(회계3), 전해경(공학계열2), 이숙원(불교4), 강민주(사) 이상 10명.

이명진(행정학) △학술교류부장=양영진(사회학) △대학원 교학부장=박정국(화학공학) △동국포스트 부주관=황훈성(영어영문학)

(경주캠캠퍼스)  
△기초과학센터 소장=이동웅(자연과학부) △동대신문사 부주관=고창택(역사철학부) △정각원 교법사=이봉준(불교학부)

## 보직인사 단행

### 사회교육원 서윤길 원장 등 12명

학교당국은 3월 10일자로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발령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캠캠퍼스)  
△사회교육원장=서윤길(불교학부) △컴퓨터교육원장=홍영식(정보산업학부) △과학관장=김병식(화학공학) △실용농장장=이명훈(생명자원과학부) △체육관장=임식(체육교육) △연구부

## 제1차 임금 및 단체협약교섭 열려

### 구체적 논의없이 양측 요구안 설명 자리

제1차 97학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지난 7일 김창욱부총장위원장을 비롯한 서울·경주 노조위원과 송석구 총장등 학교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은 구체적인 논의없이 교섭위원 소개와 양측 요구안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측 대표 송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 정제가 어려우므로 노사가 마음을 열고 조속한 협의를 이루었으면 한다”며 화합의 자세를 강조하고 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대학은 등록금 5%인상에 따라 인축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 김위원장은 “임금 인상률은 우선 학교측 제안안을 고려해본 후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인상폭에 관해 “등록금 인상을 저하가 임금 인상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원들의 최저 생계유지와 불가인상률, 경제성장률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측은 97년도 단체교섭안에 대해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금지 조항등 10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요청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측은 “개정요구안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논의는 2차 교섭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과 단체협상이 함께 논의된 이번 협의회는 노조측의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 반대 투쟁’ 관계로 예년보다 4개월 정도 늦춰진 것이다.

## 본사 부주관

### 고창택 교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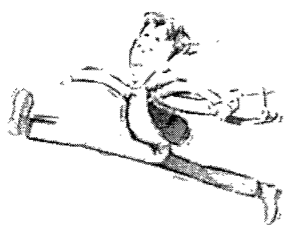
본사 경주캠퍼스 부주관에 고창택(철학)교수가 오늘 10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고주관은 '78년 본교 철학과를 졸업 했으며 지난 89년 본교 교수로 부임했다.

## 본사사령

- ◇입기만료
  - ▲편집부장=신형섭(상경대 국제경제4)
  - ▲취재부장=이현주(자연대 가정교육4)
  - ▲사회부장=송선영(자연대 가정교육4)
  - ▲문화부장=박요선(상경대 경제4)
- ◇의면면직
  - ▲한누리(문과대 국어국문3)
  - ▲김희동(문과대 영어영문3)
  - ▲한상용(문과대 일어일문3)
  - ▲김성민(사회과학대 신문방송3)
  - ▲이성웅(인문대 고교미술3)
  - ▲김경미(문과대 독어독문2)
- ◇신임부장
  - ▲편집부장=김기영(사범대 교육3)
  -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신용우(상경대 관광경영3)
  - ▲취재부장 겸 사진부장=이태훈(사
- ◇회과대학 신문방송3)
  - ▲사회부장=고지은(사회과학대 사회3)
  - ▲사회2부장=조인선(자연대 가정교육3)
- (이상 3월 10일자)
- ◇의면면직
  - (이상 2월 28일자)

수습기자 모집광고 ②

## 그 친구에게선 바람소리가 난다



21:00 뒷풀이

19:00 기사작성

17:00 편집회의

14:00 취재원 마팅

10:00 전공수업

8:30 아침조회

- 모 집 안 내
- △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응시자격: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취재·사진기자
  - △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친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3월26일(수)오후5시까지
  - △전형방법:①자기소개서-200자원고지 20매내 외로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②면 접
  - △면접일시 및 장소:서울-3월26일(수)오후6시
  - 경주-3월27일(목)오후6시
  -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 △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서울-260-3492
  - 경주-770-2057

동대신문사

### 서로에 대한 배려로 소리의 제자리 찾기



분이다. 여느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우리의 귀가 소리에 가장 민감해 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봄 교정에는 새색이 가지게 될 때, 소리, 젊은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대신 우리 불쾌하게 하는 소리가 버젓이 그곳이 자기 자리인 양 행세하고 있다.

짜릿한 거수경례와 함께 "총-쌩"을 외치는 군기 든 목소리, 90' 각도로 경례를 한 후, "선배님, (습관적 크게 쉬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목이 터져라 인사하는 소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예전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두 인사소리는 선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절의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 너무 치우쳐 본래의 좋은 취지를 뒤흔트리고 있다. 때때로 인사 후, 한 조각의 미소도 남아있지 않은 하급생들의 얼굴에서 존경과 사랑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한 위치가 이 교정에 없다면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교정 속에서도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교정, 타인의 방해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제자와 스승간의 지식에 대한 질문과 논쟁으로 터져나가는 강의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는 책임은 학생 자신이며, 그 첫걸음은 서로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김동연  
(사범대 국교과)

### 현실과 다른 강의 시간표 이제는 달라져야

올해도 여김없이 새해가 왔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항상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특히 올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지난학기에 학점이 비실비실(B.C.B.C)했고 대학 학부생활의 마지막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학기 아침부터 새단장하고 수업시간 전에 도착하기 위해 영차 영차 안가려고 하는 밤을 갠간히 한 달을 보냈다.

그러나 수업이 금요일로 합쳐졌다니 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쌓여있는 분노를 터뜨린다. 영터리 시간표는 나의 시대에서 끝나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이다.

동국의 학사업무 담당자들에게 불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9번방, ID:dgpress메일)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 적극·이성적 자세로 나부터 개혁하자

시대의 흐름이든 젊음의 뜨거운 분노와 서러운 좌절, 몇일 밤을 지새우며 고민과 갈등속에서 처절하게 찾아 헤맨 인생의 의미, '학문'이란 거대한 산과의 고독하고도 끊임없는 고투, 분홍빛 사랑에의 환희와 이별의 쓰라린 비애들이 곳곳에 배어있는 온방광을 이제 곧 스무살 후학들을 위하여 거대한 물줄기가 휘감고 있다. 문득 일년 전 어색한 품짓으로 교문을 들어서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나도 생명 가득한 물줄기가 되어서 흐르고 흘러 송고하고 장엄한 역사의 물줄기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연구교육, 봉사'의 대학이념과 전공학문의 정통함과 아울러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본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알고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하여 참다운 민주주의의 의의있는 시민과 자원을 수장과학의 정경에서도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확실하니 말이다. 어떤 학우는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시간표를 고려하여 파트타임과 빈 공강시간을 이용시간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학사운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울먹이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국인들이 이런일을 당연한 관례로 여기고 자기 주변까지 포기하는 실태를 보

고 웬지 동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점점 없어져 간다.

민족 동국 위주년을 맞이하고 참사랑 참교육 비전 100주년을 맞이할 동국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강의시간표' 운영을 계속한다면 비전 동국이 아니라 추락 동국이 될지도 모른다.

임병철  
(사범대 교육학과)

### 적극·이성적 자세로 나부터 개혁하자

시대의 흐름이든 젊음의 뜨거운 분노와 서러운 좌절, 몇일 밤을 지새우며 고민과 갈등속에서 처절하게 찾아 헤맨 인생의 의미, '학문'이란 거대한 산과의 고독하고도 끊임없는 고투, 분홍빛 사랑에의 환희와 이별의 쓰라린 비애들이 곳곳에 배어있는 온방광을 이제 곧 스무살 후학들을 위하여 거대한 물줄기가 휘감고 있다. 문득 일년 전 어색한 품짓으로 교문을 들어서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나도 생명 가득한 물줄기가 되어서 흐르고 흘러 송고하고 장엄한 역사의 물줄기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연구교육, 봉사'의 대학이념과 전공학문의 정통함과 아울러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본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알고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하여 참다운 민주주의의 의의있는 시민과 자원을 수장과학의 정경에서도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확실하니 말이다. 어떤 학우는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시간표를 고려하여 파트타임과 빈 공강시간을 이용시간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학사운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울먹이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국인들이 이런일을 당연한 관례로 여기고 자기 주변까지 포기하는 실태를 보

모습을 또다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육부나 학교당국에서 제시하는 제도나 정책의 노획함이 부담 없이 우리와 부모님들을 격려해 하지 않던 당장 우리가 '열린대학', '민족대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개인 스스로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김태훈  
(인문대 인문학과)

### 새내기 도와 주는 선배자리 지켜야

-새내기의 첫걸음 예비대학-  
별개 대학생활 4년 중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온방광 교정 여기 저기에서 97학번들의 생기를 느끼면서 약간 씩씩함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그렇듯 입학식 전에 예비대학이라는 선배들의 만남의 장소에서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도, 선배들의 정도 느꼈다. 학교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소한 문제점들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직접 해 보는 수강신청도 말이다. 또 하나 예비대를 갔다오지 않은 학우들의 조언도, 선배들의 정도 느꼈다. 학교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소한 문제점들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직접 해 보는 수강신청도 말이다. 또 하나 예비대를 갔다오지 않은 학우들의 조언도, 선배들의 정도 느꼈다. 학교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소한 문제점들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직접 해 보는 수강신청도 말이다.

찾지 못하는 대학과 대학인들.

이제 우리들은 달라져야 한다.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맞는 행사 즉 예비대학... 더 많은 노력과 준비로 새내기들이 조금 더 빨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겠다.

이수미  
(인문대 인문학과)

###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대학생활을 즐겨라

매년 이맘때쯤이면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분주한 학내생활이 시작된다. 올해는 캠퍼스 가득한 봄기운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느끼는 기분이지만 올해는 유달리 새내기들의 밝은 모습들이 활짝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 신입생의 생활이란 참 묘하다. 대학입시를 위해 짜여진 고등학교 교육을 벗어나 갑자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자유로움에서 오는 해방감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당혹감이 번갈아 엄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입생 생활은 일단 혼돈된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소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점들을 한두가지 지적해보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첫째, 여러분들은 남들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더 저절로 보았으면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러는 스포츠나 오락 등 다양한 기쁨을 보기도 해보라. 물론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사

람도 많으나 꼭 그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어설피게 착각에 빠졌 거듯이라면 언제 핑거쳐도 핑거칠 거룩이기 때문이다.

둘째, 광범위한 독서를 권장하고 싶다.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입시공부는 공부 아니었다. 그것은 보다 높은 학문을 할만한 재능이 있는지를 재보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뿐이다.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쓰도록 하자.

셋째, 자비를 배우고 생활화하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마음, 배움과 아는 마음이다. 많은 이렇듯 쉽고 간단하지만 이 말이 사회의 지도자이거나 힘으로 작용했던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이 되고 나서는 오묘한 요골인 이유로 여기에 있다. 지도층의 가슴속에 자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배움과 아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워더라도 행동에 옮길 줄 몰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세대는 하나뿐인 한반도에서 통일된 세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비가 더욱 더 필요하다.

끝으로 결코 골방 생활 같은 대학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지랑스럽게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새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라.

임상록  
(경주권 학생회 회장)

### 오늘 길 중퇴생 복교 사업 돕는 최희경(사복4)

#### "제게 주어진 일을 한 것 뿐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기보다 제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인데요”라며 수줍게 미소 짓는 최희경(사복4)양.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학과를 택했다던 그녀는 학과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과 특성상 쉽게 봉사 활동을 접할 수 있었던 그녀는 사회복지 실습 수업이 동기가 되어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부산 청소년 종합 상담실과 인연을 맺었다.

청소년 상담, 상담 내용 분석, 상담 진수 통계 등 8명의 직원과 함께 하는 그녀의 길지 않은 하루에 대해 그녀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에 몸은 피곤하지만 제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에 심리적으로는 편해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중·고등학교 중퇴생들을 복교시키기 위해 벌이는 중퇴생 복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상담원에서 하는 사업중 하나로 중퇴생들이 4일간의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학과에 복학 신청서를 내면 복학이 가능하게 되죠”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중퇴생들을 찾고 더 많은 학생들을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복교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상담을 해 준다. 5천여통의 공문을 발송하고, 또 거기에 대해 문의해 오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의외로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최양희의 말을 그들을 도와야 함을 지적한다.

“많은 중퇴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수료증과 함께 복교 신청서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들을 꺼려할 때가 많아요. 그들은 사회로부터 또 다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지요”라며 사회 한 쪽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는 그녀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진다.

또 “간간이 걸려 오는 학교측의 항의 전화에 아슬아슬을 느끼기도 한다”는 그녀는 “하루빨리 복교 사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되새긴다.

작은 체구에 수줍음이 많아 보였던 최양희는 달리 사회의 한 쪽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말에선 거대한 파도를 느끼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인데...”라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를 둘러 본다.

그녀의 실천하는 이웃사랑은 사막 해저탄 가는 이 사회에서 추운 겨울에 봄이 오는 소리처럼 간절하기만 하다.

이수경 기자

### 니기

#### 기여 입학제

- ▶ 싫어, 그러저 있으면 여기 안와어.
- ▶ 기빠지게 입학할 놈, 열받게 입학하는 놈.
- ▶ 돈 많은 사람 돈 뜯어 먹어서 좋다.
- ▶ 실력없는 학생을 대학이라는 곳으로 자원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의도다.
- ▶ 선진국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도 못할 것 없지 않나.
- ▶ 돈이 좋지만 대학도 파냐?
- ▶ 나 같은 놈은 돈도 팔고 소 팔고.
- ▶ 절대찬성!!
- ▶ 더 큰 황금민중주의를 주장하는군!
- ▶ 결사 반대!
- ▶ 교육기회의 평등에 위해!
- ▶ 돈이면 다 되는가? 입시만은 안
- ▶ 돈! 돈!
- ▶ 그럼 우리학교는 얼마짜리야?
- ▶ 돈 많은 집 자식들은 편해. 인공리질군.
- ▶ 재단이 안 먹으면 고려해 볼 수 도...
- ▶ 돈 없는 입시생만 배짜지겠네.
- ▶ 사회적계급의 위화감은 조성할 수 있다!
- ▶ 어이가 없다. 정말...
- ▶ 일류대만 돈 벌려는 수작?!
- ▶ 한 천원후에 실시하라. 내가 죽어 없어도...
- ▶ 재정확보? 등록금은 편히 냅니까?
- ▶ 이익면 부위부
- ▶ 사립대 총장님들, 실!
- ▶ 내내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 ▶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니?
- ▶ 우리 부모님 불쌍! 돈 없었어서 불쌍! 지식 공부 못해서 불쌍!
- ▶ 우리 학교동정을 서술하시어 사면은...?
- ▶ 기여입학제가 꼭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 ▶ 주위의 친구들을 의심해 봐요.
- ▶ 실마 실재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 ▶ 내 동생은 우체 대학을 가야하냐.
- ▶ 기여입학제 되기전에 대학은 대항이다. 휴~후.

### 목errick

#### 축하합니다

- 동복 37년차 김은미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34년차
- 이 김승표군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 90 용
- 이 김강준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기를...
- 90 91일동
- 재태!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어우러지기
- 성호의 정치외교학과 3학년 과제당선을 축하한다.
- 93 동과 결혼
- 형진이의 영문과 2학년 과제당선을 무지 축하한다.
- 동기들
- HB와 공주의 70일을 축하합니다.
- 그렘린
- 정미랑 진환아!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한다.
- Mr. 최
- 변혜진, 동태임으로 이시한 것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또한 더불어 자알 살아보자.
- 너의 동
- 수희야 지난 생일 축하한다. 선속이는 아르바이트 관두고 선에는 월급 받고, 우리 잘 지내보자. 10년 우정 쌓

### 동/악/광/장

#### 축하합니다

- 경찰행정학과 후배들이 환영한다.
- 3기
- 아시아 학생회실 기초학습권 보장하라.
- 야 총
- 지용아 자~알 가라
- 청
- 재진, 형진, 병수, 현일, 대경, 희주 선배님들 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는 걸로.
- 97정영학부 동
- 대아야 응비라! 제임스팔파라와 민달라비리와 잘해봐라. 주호도 있다. 민준이 울고 있다.
- 선배
- 정치외교학과 3학년 과대표는 철인 28호인가? 마징가 제트인가? 애웃은 97년 불쌍해.
- 도원, 용, 유해해도 학교 자주 자주 놀러와라.
- 선배와 사포기이
- 경숙아, 새끼 손가락 절고 했던 약속, OK!
- 지은이영, 아픈게 빨리 낫고 COME BACK HERE!
- 영문과 신입생 여러분! 이번주 소모임 소개자리에 많이 많이 참석하

다행인 식당		동국원 학생식당	
월	돈까스(1200)	월	닭조림(1500)
화	오징어볶음(1300)	화	삼겹살(1300)
수	탕수육 백반(1200)	수	비빔밥(1200)
목	소고기야채(1200)	목	돈육두부찌개(1300)
금	불고기 백반(1300)	금	행계탕(1300)
월	돈까스(1200)	월	간짜개(1200)
화	소고기떡볶이(1200)	화	감미탕(3200)
수	탕수육(1200)	수	복토떡(2800)
목	불고기(1200)	목	비빔밥(3000)
금	삼겹살(1200)	금	남미어복백반(2800)
월	아무국(1200)	월	오징어볶음(1300)
화	소고기떡볶이(1200)	화	갈비송편(12800)
수	탕수육(1200)	수	아구찜(3200)
목	삼겹살(1200)	목	오프라이스(3000)
금	삼겹살(1200)	금	돈육양념구이(13200)

#### 온방골

- 국사학과 잡부 여러분 예비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답하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 인철아, 복학 축하한다. 잘 살아라
- 문
- 석희, 광호, 준, 태근이 복학 축하한다. 열심히 살길...
- 고미사 김희정
- 영호, 형기의 복학을 축하한다. 열심히 생활해라.
- 사복 군
- 종일선의 복학을 축하드리며 공부 열심히 하시길...
- 97안수 인문 96
- 포항 영신고.유성고 동문 여러분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동문선배
- 새터 공원준비 하시는 통일 일꾼 여러분들! 공원 잘 하고 후배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97학번 중원이 입학 축하드려요.
- 통일선인 박동자
- 97학번 준식이 법정학부에 입학했어. 무지무지 축하한다.
- 형이가

#### 축하합니다

- 수경아, 힘들더라도 열심히...
- 신문사 꼬맹이들,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하렴. 너희들 뒤에 형이가 있다.
- 형

#### 축하합니다

- 또다리 부러진들아! 개강인데 모

# '흘러간 레코드판'으로 개혁은 없다

## 개각, 대선겨냥한 보신책 ... 인사 청문회 도입 필요

홍승기  
전보정치연합 정책위원

###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고건 명자대 총장,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 등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특히 이번 개각은 단순 개각 수준이 아닌 조각 수준이 될 것이라하여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두껍기 열자 '혹사나' 하는 개각이 '역사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버렸다.

김대통령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하여 사람을 쓰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무려 26차례의 개각이 있었다. 이는 김대통령이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거듭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법 파문이나 한보사태 등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장관은 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다. 외국의 경우 장관은 대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심지어 독일의 외무부 장관의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여 무려 18년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 시사논단

### 3·7 개각 진단

있다. 이렇게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그들은 장관 임명 절차를 대단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관 내정자를 의회에 불러놓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는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에게서 상당 기간 믿고 맡기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장관이 '장기판의 말'처럼 일회용 소모품 정도로 취급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거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

이번 개각은 직전에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개편, 그리고 곧 있을 신한국당 당직 개편과 연동시켜 살펴 보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김용태 전국회의원이 임명되었고, 신한국당 대표로는 이한동 고문이 유력시 되고 있다. 총리, 부총리를 포함하여 이들의 공명된 특징은 전두환 정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큰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개혁의 주체'라고 자부하던 신한국당 내 민주계가 한보사태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퇴진은 불가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 인물이 고갈되었다는 점이다. 인물군이 풍부하다면 민주계를 퇴진시킨다고 해도 얼마든지 참신한 인물을 기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고갈되었기에 '흘러간 레코드판'을 쓰는 것과 같은 개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유의해 보아야 할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종주부를 찍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주요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전두환 정권에 봉사하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개혁을 추진하려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강경식 부총리는 이미 기자회견에서 김영삼 정부 개혁의 대명사라고 자랑하는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언급했다. 말이 보완이지 실질적으로는 후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권력누수현상의 가속화이다. 주요직책 임명자들은 여러 내에서 김대통령의 경제개혁론이다. 이들을 대폭 기용했다는 것은 김대통령이 권력을 확고하게 틀어쥐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유의해 보아야 할 대목은 김대통령이 대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주요직책 임명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인사들이다. 물론 이한동 고문의 경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권포기를 대표적의 전제로 얘기되는 것으로 보아 이 고문이 수락할 경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통령이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결정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번 개각은 김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달 앓고 싶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설

### 등록금 인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동학은 봄 기운이 만연하다. 그러나 불행살을 쪼며 한가로이 동학의 교정을 거닐만큼 여유롭진 못하다. 풀지 못한 숙제가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등록금 인상은 5%로 최종 확정되었다. 예년의 15%에 비하면 훨씬 감소한 수치인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등록금이 많이 오른편도 아닌데 등록금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면 등록금 협상을 할 때 단순히 인상을 만든 문제삼지 않는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등록금을 내는 주체로서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올바르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학교구성원의 일주제로 인정하지 않고 통보대상으로 학생들을 생각 하는 듯 보인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등록금 책정 협의에 학생참여를 배제한채 인상을 확정했고 학생주체의 협상다운 협상 한 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일방발부했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은 처음 15%에서 특학격상 대상으로 발부된 고지서에는 9%인상, 1차 합격생 대상으로 발부된 고지서는 6.8%인상, 그리고 최종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발부된 고지서는 5%인상되어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처음 15%인상을 확정했음에도 현 5%인상률로 확정했을 때 나름대로 인상근거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5%의 인상근거는 교직원의 급여 8%인상, 물가상승률 고려, 각종 교육환경 개선비 반영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의 15% 인상의 근거는 무엇이 며, 어떻게 6.9%로, 또 5%로 대폭 하향조정 할 수 있었는지 궁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학생회는 고지서가 일방발부되자 날부터 투쟁을 펼치고 있고 오는 12일 등록금 투쟁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목소리만 높여 막무가내로 요구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학교는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도 등록금인상을 15%에서 5%로 낮추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등록금이 이토록 수속에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나머지 5% 인상에 대한 재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이라는 주장도 여기서 기인한다. 5%인상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학내 제 주체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하루를 주고 하루를 받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진실의 소리를 듣고 싶을 따름이다.

### 중국만평



백일 (통일문제 연구소)

## 한국 경제 실패, 피해자만 있다

◇ 심층

노동법 파장과 더불어 한보파장은 7년 초두에 온 나라를 흔들었다. 양대 사건이다. 정태수 일가의 한보그룹은 조원 규모의 부정부패와 과잉투자의 상징으로서 정·재·금융계를 흔들었지만 해산관련자(?)를 빼놓은 채 수사가 종결되어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한보사태와 같은 정경유착 비리와 그것을 덮어두려는 은폐공방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경우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16이후 삼분(三粉)파동, 79년 윤산과 삼화의 몰락, 82년 장영자·이철화 사건, 84년 명성사건, 85년 국제그룹의 몰락, 89년에서 96년까지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정치자금 비리사건 등등 대형 경제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경유착을 통한 이른바 기득권세력, 정·재계의 인물들이 출몰이 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규명이 대개는 흐지부지되어 국민들의 실망은 물론 세계적으로 나라방신을 담했던 일들이 한국경제의 산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정경유착사건인 한보사태가 패해져질수록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이 또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 좋은 기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보사태를 역사에 맡기기 전에 그 의미를 경제적으로 분명히 짚어보자. 왜하면 한보사태는 정경유착과 재벌의 여신독점현실이 반영된 특혜 부정부패사건인 동시에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정책 실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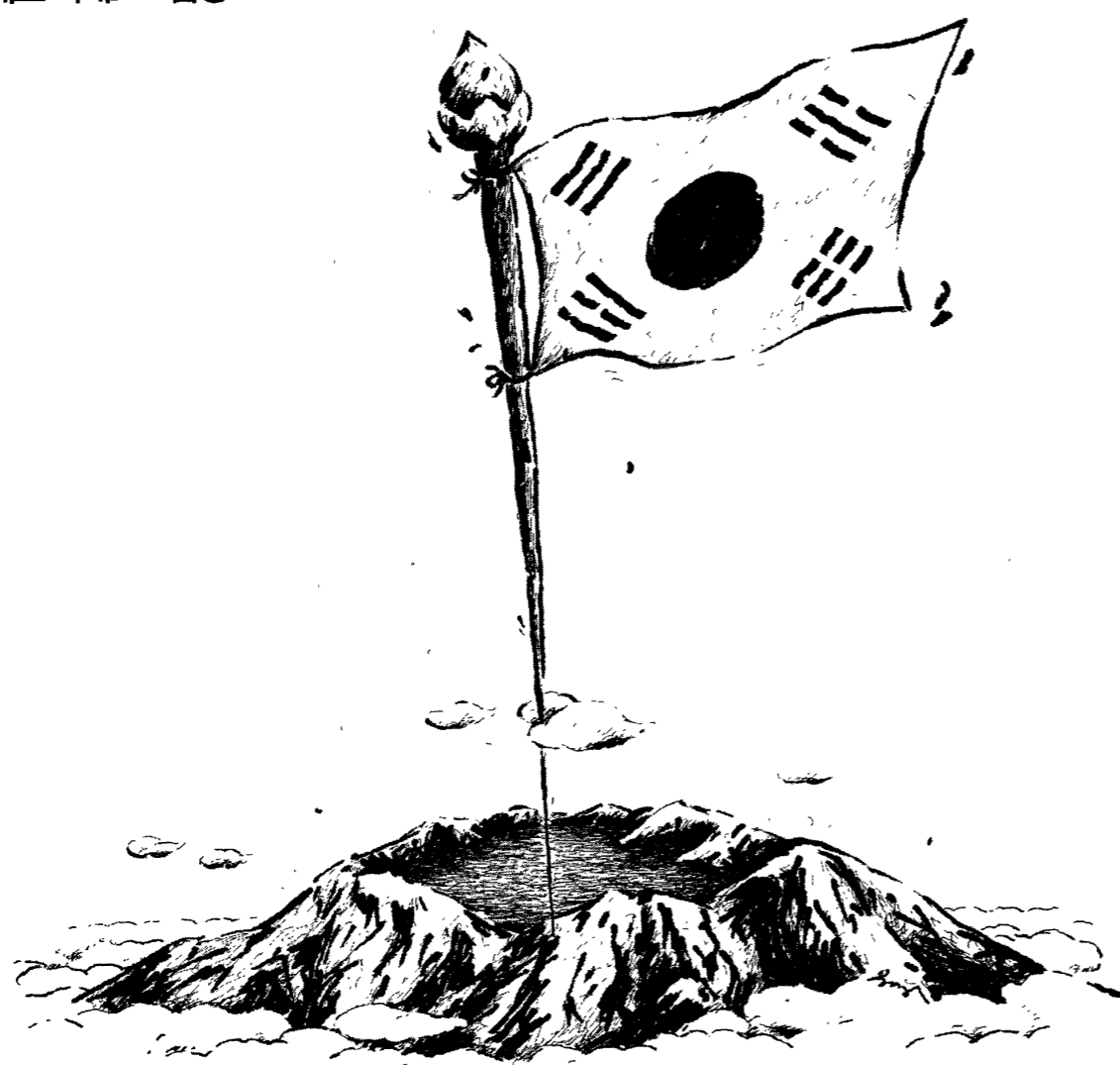
최근 한국경제는 경수수지적자(2백 30억불), 외채금증(1천1백억불), 물가인상, 실업률, 환율비상, 경제성장률(4.5%), 기업이윤율 격감 등 주요 경제지수의 대부분에서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한보사태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불황의 반영이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철강산업의 과잉자본화, 정부와 한보의 투자실패, 이것이 한보사태의 경제적 본질이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실패가 우연한 것인가 구조적인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구조적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한다. 그러므로 한보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번 기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며, 제2, 제3의 한보사태는 이제까지의 현대 한국경제사가 그려왔던 것 처럼 조만간에 언제든 재현될 것이다. 그 단서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은 경제실패의 최종 책임자가 없다는 데 있다. 부정축재는 어제의 일이며, 자본과 권력결탁의 관행이 살아있는 한, 오직 로비와 매수가 치부의 본질이며, 기업의 생산성은 치열한 경쟁에서 성장한 건강한 자본과 질 좋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은행돈과 낮은 임금과 시장지배에 대한 특혜에 달렸을 뿐이다. 이러한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경제는 망해도 부자와 권력의 영역은 살아남아왔던 96년의 멕시코(경제파탄후 멕시코의 자본들은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결코 멀리있지 않다.

###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전문가 삼성생명을 움직인다



## “남북통일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일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하십시오”

삼성생명의 상품개발전문가들이 그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삼성생명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단순히 국내 제 1의 보험회사가 아닌, 종합금융회사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전문가들의 힘에 있습니다. 0.01%의 이율에 도전하는 Fund Manager, 보험계약을 심사하는 Underwriter, 적정보험료를 산정을 통해 결산손익을 관리하는 계리전문인력과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삼성생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금융서비스까지, 생활의 구성구석에 함께하는 전문가의 손길, 21세기 종합금융회사 삼성생명이 함께 합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개인적 희생은 감수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갈등을 표시했던 수많은 민주열사 및 희생자 잊혀져 가는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자리가 있었다. 참석자들과 함께 열사들의 희생과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의 1차 학술세미나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란 기저로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의 1차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상임위원장=이창복 이하 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기조연설에서 한겨레 신문사 전 사장인 임재경씨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민주열사·민주희생자들의 행적과 사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술하는 방법까지 착수하여야 하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민주열사·민주희생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세미나는 시작되었다.

이어 진행된 제1주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은 김봉우 민족문제 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서론에서 "한국역사는 근대 이후 서구제국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그려며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한국 근대 이후 이념대립의 본질 △근대 민족국가 수립운동과 이념적 갈등 △민주주의운동과 이념갈등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분단체제 운동과 이념 갈등 △민주주의운동과 통일운동 그리고 이념 대립 등 지금까지 한국사 화를 관철해 온 이념갈등의 양상을 살펴본다. "시대적 상황은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해왔지만 언제나 의제와 그 앞잡이를 한편으로 하고 한국의 민족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갈등구조였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결론을 맺었다.

제2주제는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열사의 발생과 명예회복 방안을 토대로 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희생자 의미 조별"으로 김상용 친일문제연구소 회장이 발제하였다. △역사와 국민의 망각증세 △왜정시대 의열사와 독재시대 의열사 △국민주권과 의열사의 '집단 망각증'이란 이것으로 일컬을 수 있다.

제3주제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제출된 루이 주아네의 최종 보고서 초안은 "사회 전체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할 의무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인권 유린의 사실, 이유, 구제에 대한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관련 공문서를 보전,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의 실효적 사법 처리를 위해 공소시효, 사면 제도, 망명 제도, 범죄인 인도 제도, 권력제한과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6월 초에 '문사 독재정권 시기의 열사·희생자·의문사 주제'로 제2차 학술회의를 할 예정이다.

# 민주화 희생자 명예회복 시급

## 정부·국회,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 이 세상의 심장이 노동자의 죽음과, 탄쟁 -이상모 박진석 정례식

20세기 한국 근현대사가 민족적인 정체성 확보투쟁이었다고 규정하여 전대면 전반 반세기에는 항일 민족해방투쟁이고 후반 반세기에는 통일과 반독재 민주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사 독재에 저항하여 생명을 던진 민주 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문사 당한 인사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예우와 진상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조국 해방에 몸을 바친 많은 애국자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 민주와 화해를 품은 희생한 이들을 거의 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과 역사의 '집단 망각증'이란 이것으로 일컬을 수 있다.

제4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제출된 루이 주아네의 최종 보고서 초안은 "사회 전체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할 의무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인권 유린의 사실, 이유, 구제에 대한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관련 공문서를 보전,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의 실효적 사법 처리를 위해 공소시효, 사면 제도, 망명 제도, 범죄인 인도 제도, 권력제한과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민족 민주 열사의 명예회복

다. 민족 민주 열사와 희생자들의 문제는 과거 청산이라는 대범한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과거 청산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야 비로소 올바른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단지 개인적인 저항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시기 시기마다 자주·민주·통일, 나아가 노동 해방이라는 민족적·국가적 과제를 주장하다가 산화하였고, 그 죽음은 곧바로 민족 민주 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자결을 선택한 열사들의 죽음도 이런 구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럴 때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옳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의 폭압과 공포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하고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다. 민족 민주 열사와 희생자들의 문제를 과거 청산이라는 대범한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과거 청산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야 비로소 올바른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단지 개인적인 저항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시기 시기마다 자주·민주·통일, 나아가 노동 해방이라는 민족적·국가적 과제를 주장하다가 산화하였고, 그 죽음은 곧바로 민족 민주 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자결을 선택한 열사들의 죽음도 이런 구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럴 때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옳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의 폭압과 공포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하고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다. 민족 민주 열사와 희생자들의 문제를 과거 청산이라는 대범한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과거 청산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야 비로소 올바른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단지 개인적인 저항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시기 시기마다 자주·민주·통일, 나아가 노동 해방이라는 민족적·국가적 과제를 주장하다가 산화하였고, 그 죽음은 곧바로 민족 민주 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자결을 선택한 열사들의 죽음도 이런 구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럴 때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옳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의 폭압과 공포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하고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 진관스님 석방 촉구·민족 화해 통일 기원의 자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진관스님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이 지난 4일 분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분교 석리회, 실천불교전국승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등 8개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후원의 밤은 중회의장 설경스님, 중회부의장 청하스님, 중회의원 지원스님, 분교 연가교 교수,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김근태 전주고 정구현사제단 안홍석 신부,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이기욱 변호사 등 20여명의 내외 인사와 1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개회사 및 내외의 귀빈 소개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분독 △화상보고 △내외귀빈 인사 △진관스님의 활동과 수행생활 △진관스님의 육중사신 낭독 △각 단체별 구속 석방 촉구 △진관스님께 드리는 글 △진관스님 석방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낭독된 진관스님 육중사신에서 스님은 "잠시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니,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우리스님들이 지켜야 하는데, 아직도 불교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분명한 정화시대의 수행자가 아니며, 정화시대의 불교를



뒤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이 땅에 이룩해야 하는 것이 나의 비련이네"라고 하고 '남북의 문제를 원효스님이 말씀하신 화평사상을 받아서 수많은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에 밑거름이 되게 해야하네, 비로 이런 불교가 나의 비로 연구과제에, 민족불교문제가 되겠다'라고 통일과 불교에 관한 스님의 생각을 밝혔다.

또 스님은 지금도 어느 절에서는 대법령을 위해서 축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민중들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육중사신을 통해 전하며 "기도는 가난하고, 병고, 괴로워하는 민중들의 위해 할 때만 진정한 기도일 것이고 원효스님과 대안스님의 열불이 바로 민중과 더불어 사는 열불일 것"이라고 하며 "동안계를 마칠 마지막 밭짓같은 용맹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진관스님 석방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 진관스님의 석방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부도

덕한 이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줄 것, 민족의 화해와 통일등을 발원하였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10월 1일 국가보안법심판회합·통일위원회의로 구속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에서 진관스님 구속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5일이나 더 불법감금하였고 지난 2월 14일에는 1차공판이 있었으며 지난 7일 2차공판이 진행됐다.

진관스님 구속과 관련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명은 10월 2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회 규탄성명을 비롯해 천주교 인권위, 진관스님 구속 진상규명 석방을 위한 불교대학, 불교 인권위,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문화위원회, 조계종 중앙총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수십 차례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위는 진관스님발 법구공과 관련 안우만 전 법무장관, 김기수 검찰총장, 신진수, 이용훈 서울지검 검사등을 고발한 상태이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참가한 대학원 관계자는 진관스님 구속사건에 대해 "진관스님의 석방촉구를 위해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관스님이 석방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했다. (사취부)

### 동기로

## 윗니와 아랫니



"우리는 왜 수강신청 확인원 안주?" "아간강좌는 좀 늦게 나온데..." "그래?"

수강신청 확인원을 받으려는 야간 경상학부 학생과 야간 경상학부 대표자와의 대화이다. 이 학생을 비롯한 일부 야간강좌 학생들은 화요일날 배부된 수강신청확인원을 목요일 오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야간강좌 학생회가 화요일날 미처 가지 못한 학생들의 수강신청확인원을 학생들의 등의 없이 그리고 회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수거했기 때문이다.

수강신청확인원이 배부된 지난 화요일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들이 모여 △수강신청 기간 연기 △분반으로 피해보는 야간강좌에 대한 대책 △분·폐강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위해 수강신청거부의 표현으로 수강신청확인원을 수

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강신청확인원이 이거다 배부된 상태에서 정정기간이 토요일까지 이고 선착순으로 정정이 가능한 이번 수강신청 방법상 현실적으로 배부된 확인안을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단지 야간강좌의 경우 절간강좌가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수강신청확인원을 전량 수거한 것이다. 이중 대부분이 학생들의 동의없이 회수했다가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강신청확인원을 받지 못한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다.

윗니와 아랫니가 어긋나면 얼굴모양 전체가 틀러지듯 단대 학생회와 과학생회·대표자간의 연계가 "부족하면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겪고 불이익을 받는 법이다. 학우를 위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신중함이 우리의 대표에게 조금 부족하지 않겠다. (심미선 기자)

**EPSON Stylus Color 300**

17.5 x 11.5 x 11.5 (mm)

128, 72, 720 x 360, 720 x 360

1, 1

100

None

Adobe PhotoDeluxe, Sierra Print Artist

\$221.50, \$28.50 cents, 5 cents

9:00-9:00, 7 days, 2 years

**EPSON Stylus Color Pro**

17.5 x 11.5 x 11.5 (mm)

128, 72, 720 x 360, 720 x 360

1, 1

100

None

Adobe PhotoDeluxe, Sierra Print Artist

\$318.20, \$32.60 cents, 2 cents, 5 cents

9:00-9:00, 7 days, 2 years

**HP DeskJet 400**

13.7 x 6.4 x 7.9 (mm)

6, 6, 3, 4

50

L straight, PCL 3, Midley & Friends Print Studio

\$32.95, \$32.95, 3 cents, 23 cents

8:00 A.M.-midnight M-F, 1 year

**HP DeskJet 600**

17.9 x 17.2 x 16.0 (mm)

14, 3, 4

100

U

Midley & Friends Print Studio

\$37.00, \$34.95, 3 cents, 8 cents

8:00 A.M.-midnight M-F, 1 year

printer: You can get great output at relatively slow speeds or good output at average speeds. For example, printing speed was good but not outstanding on application tests in default 360-dpi mode, but the times slowed when the Stylus Color 300 was run in the 720-dpi mode that produced the terrific output.

The Stylus Color Pro is unique in its ability to print at 720 dpi on plain paper.

# "PC매거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美PC매거진 선정 최우수 컬러 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500H가 세계적인 PC전문지 미국의 'PC매거진'이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개인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출력속도, 선명도, 호환성, 경제성, 편리성을 비롯, 구입 후 고객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된 스타일러스 컬러 500H-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세계가 인정한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프린터입니다.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 마이크로 아크 방식의 720 DPI 초해상도(600x4)
- 속력 48PPM, 컬러 15 PPM의 고속 출력(500H)
- 1670년 True color의 생생한 표현
- 국내 최대의 알뜰방문 서비스 센터
- 카드와 카드리지 분리로 카드리지 교체 용이
- 윈도, DOS에 레전드용 접속 가능
- 한글 오토카드, 리모콘, 프로그램 지원
- 에플리케이션 KS, KSSM+

PC MAGAZINE EDITORS' CHOICE? 세계의 PC전문지 PC매거진에 선정된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는 뛰어난 성능과 뛰어난 고객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하며, 알뜰방문 서비스 센터를 통해 400여 개의 서비스 지점에는 뛰어난 성능과 뛰어난 고객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속도: 48PPM (흑), 15PPM (색)  
 인쇄 해상도: 720 DPI (흑), 480 DPI (색)  
 인쇄 속도: 15PPM (색), 48PPM (흑)  
 인쇄 용량: 100매 (흑), 100매 (색)  
 인쇄 비용: 0.3cent (흑), 0.3cent (색)  
 인쇄 속도: 15PPM (색), 48PPM (흑)  
 인쇄 해상도: 720 DPI (흑), 480 DPI (색)  
 인쇄 속도: 15PPM (색), 48PPM (흑)  
 인쇄 용량: 100매 (흑), 100매 (색)  
 인쇄 비용: 0.3cent (흑), 0.3cent (색)

삼보컴퓨터 http://www.trigim.com

찬 "사립대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반 "돈으로 학력을 살 수 없다"  
그동안 잠잠하던 기여입학제 논란이 10여년만에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 총론을 통해 기여입학제가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각각 알아본다.

(편집자)

## 기여 입학제란 무엇인가

### 사립대학 재정지원으로 입학권 획득 을 초부터 총장협의회서 강력추진

#### 제기 과정

지난 1월 22일 전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박재규·경남대 총장)가 기부금 입학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시기가 되면 불거져 나온 기여입학제는 그동안 문제제기의 차원이었으나 이번처럼 사립대학총장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여입학제가 공론화된 것은 87년 8월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80, 90년대의 입시부정사태와 관련해 대학교육개혁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이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국민여론에 밀려 기여입학제 논란은 잠시 주춤세를 보였으나 이후 94년 4월 '사립대학의 학생생태권과 기여입학'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기여입학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펴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94년 교육부는 '자율능력이 있는 대학에 한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서서히 불거졌고 이후 97년 2월 사립대학총장 '한국대학의 현상과 기여입학제'란 주제 발표로 기여입학제의 논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 실명 의미

기여입학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에 대해 토지, 건물, 금전 등을 무상으로 제공 지원 하면 관련 직제사수에 한하여 대학의 입학기준에 근거 입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현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의 초래를 의미하고 돈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살수 있다는 배금주의 풍조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여

입학 선정과정부터 잡음과 비리가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재단이 사학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부 재단이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자체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 입학생 정원수보다 대학정원수가 더 많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자체의 특성화를 살려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기여입학제로 전화할 소지를 낳아서는 안된다.

#### 찬반 양론

기여입학제의 찬반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찬성입장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를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이상의 국고금이나 재단전입금 또는 등록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재정난을 기여입학제로 해소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21세기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대학들간의 경쟁이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외국에서도 실시되는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로 외국에서 실시한다는 학부제도 도입하는데 왜 기여입학제는 안되는지 묻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반해 반대입장측은 현실성에 비춰볼때 아직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학과전공이 아닌 학벌에 의해 자신의 출세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기여입학제는 폐단만 가져올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대학=돈'이라는 도식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론이 사실적으로 명분화된다는 견해다. 몇년전의 특권층 인사 자녀 부정입학을 보더라도 기여입학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이런 찬성과 반대의 두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화해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사회부)

#### 찬성론

### "필요악이다"

80년부터 논란이 된 기여입학제 도입이 문민정부이후 등록금 인상정책에 맞물려 거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교를 비롯한 고려대, 홍익대 등의 사립대들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시설투자없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있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적극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정에서 재채나 행정, 금융상의 혜택이 적용되는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다시 재벌로 이어지는 반면 학교재단 수익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재단전입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단체사업체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정책으로 법인지원금의 증대를 유도해야 하며 지자체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기부금면조치, 경성비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정책만이 대학내의 재

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환경과 사회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여입학제 도입은 생각할만하다. 다만 용도관리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각 사립대학은 기부금관리에 있어 위원회를 조성하고 자체의 감사도 감안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일반전형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사립대학은 장애인들의 입학특례와 같이 신입생정원의 1~2% 학생들에게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 입장을 보인다. 아들에게 1명당 1여원을 받는데 이전의 등록금 의존율 7%가 낮아지고 따라서 등록금의 인상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것이다.

더구나 대학재정과 함께 교육개선도 특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05년 교육개방과 더불어

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신뢰하는 서울대까지도 세계랭킹위권에 들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열악한 교육·연구환경개선을 위해 시설확충, 연구실험용 기자재 구입, 교수대 학생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수증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육연구여건은 물론 후생복지 개선, 장학금 지급 증대도 기여입학제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반대로 몇몇 전문가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현 사회에 존재하는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현 사회에선 오히려 폐단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각 사립대학은 대학자체로서의 특성화를

마련하고 재정보충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96년도 도과성 조기유학에 쓰인 금액이 1조원을 넘긴것만 봐도 사회적 병폐인 도과성 유학, 입시파외로 낭비되는 돈을 대학내로 끌어 내실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여입학제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21세기 입학생수가 급감하고 물가상승률이 웃도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학문의 발전과 교육여건이 질적개선을 담보해 나가는 힘이다.

기여입학제 대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인선 기자)

# "아빠가 모대학에 입학적금 붓고 있어요"

## 교육시장개방 앞두고 관심 첨예 ... 다양한 방안 고려 해야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사회적 불신해소를 위해 정부의 특별 전향 실시, 기여금의 시설투자과 장학금 지

를 실시하면 대학 진학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계층간의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기여입학제는 민주주

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부 재단이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PC통신에서도 '빈대 잡다가

#### 반대론

### "절대안된다"

어는 중학교 영어시간. 선생 : 너는 숙제도 안해오더니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있냐?

학생 :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모대학에 어제부터 5년간 입학적금을 붓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대학신문에 실린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가상 사례의 한 내용이다.

사립대의 재정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립대 총장들의 주장은 우선, 입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이다. 자기의 노력과 성실을 다하고도 입시에 실패했는데, 옆의 친구는 대학에 돈을 내고 대학생이 되었다면 열과 성을 다한 수험생이 받게 되는 박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금, 공신력 있는 감독관청의 공개감사를 받을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의 기회 균등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수험생 대부분이 일류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여입학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만은 절대 금권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 이념 훼손' 등이다.

사회 곳곳에서 금권에 의한 비리가 터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 시국에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또다른 비리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부유층 자녀들은 기여입학제

의 기본인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 학교에서는 '기회평등'을 가르치면서 교육계에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결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특권과 특혜를 당연시하는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이를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일류대 학생들은 가정생활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처지는 현상)과 '대학 서열화'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왕 가려면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대학이 서열화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기여입학자 선정부터 잡음과 비리가 나올 수 있고, 재단이 대학 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

초기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와 반대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이재운 교수(중앙대)는 사립대 재정확충 대안의 한 가지로 '상위 고소득층의 부동산을 위시한 재산세에 교육세 부과'를 내 놓았고, 박거용 민교협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재정난 타개는 국고보조금·재단전입금·기부금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사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여입학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대계다. 그만큼 사회의 어떤 분야 보다도 중요하다. '참사랑, 열린교육' 무엇보다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용환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질서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50  
LEADER 1997

#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 이 오 텍**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산염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화학 신물질개발

**정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석유화학** 석유화학 범용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 개발

**정밀화학**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 LG화학

LG화학·LG석유화학·LG실트론·LG일라이드시그널·LG오웬스코닝·LG MMA

### 문화단신

영화이야기

◇잉글리쉬 페이션트... '97아카데미 12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로 알프 파인즈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주연. 안소니 밍겔라 감독. 문명적인 사랑이야기와 감동이 담겨진 영화. 미국의 타인, 뉴욕 타임즈, 뉴스위크 선정 '96 최고의 영화였다. 오는 15일 대한극장에서 개봉예정.



연극이야기

◇텍스트러블... 공연텍시사장 장태배의 하트박동만 일어나는 풍한과 생계적 공간인 텍시를 통해 우리 세상을 은유하는 이야기. 장진 연출. 최민식, 엄정화 출연. 오는 18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할 예정. 문의 (3444-0651)

음악이야기

◇박정은 콘서트...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성, 세련되고 진실한 무대매너로 꾸준한 라이브무대를 지켜온 실력파 가수 박정은. 최근 내놓은 6집 앨범을 통해 느낀 그의 변신과 원숙함을 개성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문화일보홀에서 평일 7시30분, 주말 4시/7시. 문의(285-0434)

◇신촌 동네 음악회... 실력은 있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아마추어 및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신촌동네 음악회는 언더그라운드들만의 자리로 장르에 관계없이 각각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벚'이라는 라이브 극장에서 1만 원 내외의 관람료를 내 줄 관객을 기다릴 예정이다. 문의(333-8467)

### ◇89주년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

## '여성문제, 더이상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권익 디딤돌·걸림돌 발표... 사회참여의식 유도하는 계기 마련

이제는 더이상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여성문제. 온갖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과거의 전통과 악습이 남긴 폐해에서부터 권익을 찾아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지난 9일 89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 행사이다.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를 기치로 1부 사전행사와 2부 본행사로 나눠 진행했다.

사전행사로 여성의 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여성의 몸 읽기' 퍼포먼스는 여성의 눈을 '새롭게 보기'가 숨은 '시망', 자궁은 '청초', 손은 '노동', 발은 '바로서기'라는 의미로 여성 미술연구회가 제작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본행사는 비디오 상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90년 여성권익 디딤돌·걸림돌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여성운동이 걸어온 길'과 여성계 주요 이슈를 담은 비디오 상영, 평등한 인간으로서 성차별받는 여성 현실을 대변해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올해의 여성운동상으로 선정된 여성신문사 이계경 사장의 수상식, 그녀는 23년간 여성운동의 외길을 걸어오며 여성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오로지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신문을 펴내 여성계의 한 획을 그은 업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여성단체의 주관이 개입된 90년 여성권익 디딤돌·걸림돌 발표였다. 디딤돌로는 정신대 문제를 극내외적으로



◇여성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 '가깝은 날의 오후'

관련 변영주 감독,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추미애 의원, 명동성당 농성단으로 참가한 유일한 여성 박문진 병영노련위원장, 여성장애인 문제를 여튼화시킨 '빛장'을 여는 '사람들', 성추행범을 쫓아 숨진 최성규 씨 등이 선정되었다.

걸림돌로는 여성차별정년을 인정한 김형선 대법관, 솔벤트 유기용제 중독 파문을 일으킨 ICG그룹, 영화제작자 씨네마 서비스, 한총련 여대생' 사건을 투쟁으로 사용했다는 이재오 의원, 학생들을 성추행한 환수연 전 교유자 등이 선정되었다. 비록 디딤돌·걸림돌 모두 주관적으로 선정된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여성의 눈에 비친 모습'을 간파하는 언젠 날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 행사는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사회참여의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면 '세계 여성의 날'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1만5천명 여성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면서 선거권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었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불부림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3.8기념행사를 치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고 1985년제아 비로소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설움을 이겨내며 사는 여성들. 단 하루의 행사였지만 '세계 여성의 날'은 이들에게 자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오)

### ◇총여학생회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 학교에서는 생리대를 찾을 수 없다.

부활 9대 총여학생회부터 지난 3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작년 겨울에야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동학의 여학생들은 지난 3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생리대가 없는 불편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한 달에 사흘에서 다섯은 생리대를 써야 하고, 특히나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이기에 교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이다. 동학의 복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어찌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의지이다.

그러나 단순한 의미의 복지만 사고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성을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학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 성차별을 문제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과학생활, 단과대학생활, 총학생회로 이루어지는 공간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있으며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총여학생회는 하나, 둘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내어 한 하나의 합성과 의원이 되어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문제제기하고 철폐시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창출할 것이다.

출발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김인영

(총여학생회장)

## 국보급 고려시대 의복·계첩 발견

문화재 발굴뒤에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즐겨입는 청바지나 가죽잠바를 몇백년 후대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얼마전 6백년 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고려시대 유물을 보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대단한 연구자료를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퍼뜩 씩씩하지만 그것이 연구, 조사 자료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난 후 모노이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위치를 의심하게 된다.

최근 잇따른 유물발굴을 지켜보며 과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훌륭한 문화재가 발굴됐다

는 희소성과 함께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재를 잃게 됐다. 안타까움을 동시에 맛봐야 했다.

이는 어쩌면 크게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다반사였고 지금도 어디엔가 묶은 습기를 털고 세상에 소개될 문화재가 있다면 또 반드시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버린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신라 문화의 보고인 경주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세계 문화재로 등극할 예정이었던 경주 남산 국립공원이 불에 타는 동안 우린 이 소식을 기다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5일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경남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의 목조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국보급의 고려시대 의복 11점과 계첩 12점이 발견되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조계종 종단 산하 성보문화연구원(원장=법하스님)이 지난해 3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의뢰에 따라 해인사의 본·말사 1백14개와 월정사의 본·말사 61개에 소장된 문화재들을 정밀조사 하던 중 해인사에서 지난해 9월에 발견되었는 데, 6개월 동안의 보존처리를 거친 후 공개한 것이다.

이 의복들은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 안에 봉안하는 복장유물의 하나를 고려 충숙왕 13년(1326년)에 만든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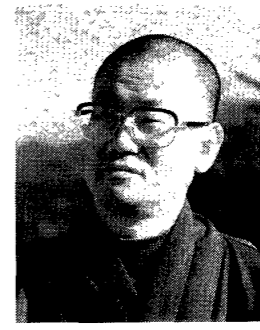
과 어린이의 평상복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옷속에 적힌 명문(신분을 나타냄)으로 알게 된 '송부개'는 15세 남자의 옷으로서 모시로 만들 평상복이며 그 동안 학계에 이렇듯 전해오던 요선전적으로 밝혀졌다. 이 의복은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옷으로는 가장 오래된 옷이며 저고리의 형태 등이 후대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현대복식의 미감을 능가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 11점의 의복은 그 동안 추정만 해왔던 당시의 복식 형태를 실증적으로 밝혀주며 또한 고려시대의 복식형태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의복과 함께 비로자나불에 있던 계첩은 지공화상(1326년 고려에 입국하여 2년 7개월간 포교하다 귀국한 인도 의 스님)이 유물로 쓴 것으로 '해경3년'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어 1326

### 달 하나 천 강이

추상적인 봄맞이



어릴 때 봄을 맞이 하면서 느꼈던 그 생생함이 생각난다. 아침 마당의 철사 빨랫줄에 매달려 있던 구슬같이 영롱하던 물방울들, 화단에 솟아오르던 잣나무기 손가락처럼 임종스런 난초의 새싹, 양지바른 울타리 구석에 수줍게 얼굴을 내밀던 쇠나무 민들레 꽃송이, 산모퉁이에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린 아지랑이, 파란 보리밭 위로 비껴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종달새, 벌판 끝으로 기적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달려가던 기차, 물이 가득찬 논에서 울어대던 개구리...

이 모든 일들이 삶의 환희 같았다. 나이를 먹어 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모두 시들해져 버렸다. 봄이 의도대로 기쁜 줄을 모르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슨 종래하고 심각한 일이라도 하는 날 오만 상을 쥘려고 지낸다. 창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봄은 참다 못해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눈길을 자극해 보기도 하다가 모두 부질없는 일임을 알고는 어느 사이엔가 슬며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봄이 떠나버리고 나면 비로소 허무하게 보내 버린 봄을 아쉬워한다. '다음 봄에는 절대로 이번 봄처럼 지나치는 말아지지. 진달래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날에도 그리고 물오른 강이 버둥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을 나일뿐 가는 길 강변에도 가지지. 보리밭은 벌판을 한 나절 좁은 걸이보아지지. 아무리 바빠도 서성성에 올라가서 햇빛 찬란하게 쏟아지는 봄바다는 보아지지. 햇빛이 겨울 눈처럼 휘날리며 떨어지는 날 오후에는 보문 호수의 남쪽 길을 꽃잎을 밟으면서 걸어가지.' 그리고는 논문제목이라도 정할 듯 새 봄에 가보고 싶은 장소들과 해보고 싶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본다. 보리 이어 가는 벌판구석에서 빠꾸 소리 들기, 송화기루 날리는 삼봉 숲길의 산책, 그곳까지 간 김에 소문난 우리 밀 손 칼국수 한 그릇 먹기, 갑포 앞 바다에서 포말을 일으키면서 부시는 파도소리, 기림사 가는 길에서 진하다 진한 아카시아 향기 맡기, 불문 가득한 오사아 앞 호숫물에 손 담그기, 부처님 오신날 밤중에 환상처럼 타고 있는 백운산 경내의 등불구경...

'봄과 더불어 가보아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두침침한 연구실 책상 앞에만 앉았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연이 베푸는 선물에 대한 모독이다. 참 삶에 대한 위선이다.' 참화라도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결심을 다진다. 그러나 새봄이 오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는 듯이 다시 그 아름다운 봄을 괴롭게 보내고 만다.

봄을 직접 마주 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봄을 비껴가서 지난날 봄을 회상하고 돌아올 봄을 그리워하는 것이 더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감정이 매달라 있을때는 봄의 음악을 듣기도 하고 봄의 시를 읊기도 하면서 봄을 생각한다. 얼마나 이룰까만적인 일인가. 몸으로보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답게, 구체적인 봄보다는 추상적인 봄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결심을 해본다. '이번 봄만이라도 정말로 봄답게 보내야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윤병식 (불교문화대 불교학부 교수)

이 발굴되었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유구한 역사가 남은 자손들에게 우리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문화유산이라는 영예를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 (임세라 기자)

### 중외제약

오늘로 여고시절 안경은 안녕~  
이젠 절 '숙녀'라 불러주세요!



여고시절 끝, 나도 이제 어엿한 숙녀 -  
이젠 내 앞을 가로막던 안경을 벗고  
성인답게 나 자신을 가꿀 때가 온거야!  
콘택트 렌즈는 안경보다 관리하기가  
귀찮지 않나? 그런 정답 모르는 소리!  
중외 SPC와 새로 나온 MPS,  
두가지만 있으면 세척에서 닦아낼 때까지,  
행균, 소독, 보존, 윤활작용까지  
렌즈관리의 모든것이 간편하게, 빠르게  
해결되는 데 왜 걱정?  
나 이제 예쁜 내 눈, 맘껏 뽐낼거야~

#### 렌즈관리의 황금콤비 - 중외 SPC, MPS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중외 SPC의 렌즈관리 1단계!  
하루 한번 세척으로 잘 닦이지 않는  
단백질까지 말끔히 제거해주므로  
새것오염은 물론, 눈의 따끔거림까지  
방지해 드립니다.

행균에서 소독, 보존, 윤활까지 -  
중외 MPS의 렌즈관리 2단계!  
편리한 원터치 캡의 중외 MPS는  
행균, 소독, 보존, 윤활작용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렌즈사용자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SPC 에스피씨  
\*우유원액 함유 \*렌즈세척용액 W5,500(2개월분)

에피에스  
EPIE MULTI PURPOSE  
\*렌즈세척용액 W5,500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  
문의: 02-815-1999  
문의: 02-815-1999  
문의: 02-815-1999

# PC수강정정, 수업조기 정상화 계기

## 분반·폐강과 실습실이용등 문제점 보완해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PC를 이용한 수강정정이 몇가지 문제점을 낳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큰 무리없이 진행됐다. 이번 수강정정은 종전과는 달리 분반과 각 컴퓨터 실습실을 이용하였고 각 강당당 인원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정정이 가능하였다.

5일부터 수강정정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오전9시에 컴퓨터를 가동해 얼마 지나지않아 중앙컴퓨터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해 수강정정을 하기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던 학생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교수와 관계자는 "시험작동시 처리속도가 느려서 시스템을 교체했으나 시간이 없어 시험작동을 해보지 못했다"며 "처리속도가 빨라지자 중앙컴퓨터가 용량을 견디지 못해 다운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강정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생각보다 조작이 쉽고 OM카드보다 간편하다"와 "수강인원제한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없다"로 나

뉘어졌다. PC를 이용한 수강정정은 듣고 싶은 강의를 인원제한으로 인해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남기지만 계속되는 분반으로 인한 강사초빙·강의실 변동 등으로 약 한달가량 가량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종전과는 달리 최종 출석표가 나오는 11일부터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업의 조기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학생들의 수강정정기간이 최초수강신청기간인 복학생들은 강좌선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점과 수강정정기간동안 실습실을 사용하지 못해 1학년 컴퓨터 실습수업이 휴강되는 점 등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회장=구경주 '야간경영4')는 지난 6일 12시 중앙도서관에서 '편의적·일방적 행사행정부분배와 교과과정 정상화를 위한 권고대회'를 갖고 한때 총장실을 잠거했으나 곧 서서실장과 교수처장, 학생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수강정정기간 연기 △분반·폐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형상 분반의 대상이 되는 야간강좌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하루동안 6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정을 했고 1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어 연기가 불가하다. △단순순으로 분반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이므로 학년별로 나누는 등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인터넷 무료교육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는 오늘(10일)부터 계산관 1층 학생문화복지실에서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인터넷 교육은 지난해 실시해 호응이 높아 다시 실시하는 것이며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수강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의 운영체제, PC통신, 인터넷(월드와이드웹)등이다.

### 생협 자판기 계약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캔 자판기는 두산음료, 커피 자판기는 동서식품과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경배 사무국장은 "그동안 학생회에서 두산음료 선정에 크게 문제를 제기 했으나, 계약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아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영배 교수 도서기증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에 지난 학기에 장년퇴임한 김영배 교수(국문학과) 교수가 개인소장 도서 3천여권을 기증했다.

기증된 책은 국문학 관련 여러 사료 및 책들이며 개인이로는 많은 수의 기증이라고 도서관측은 밝혔다.

### 구매과, 방중 기자제 구입

구매과(과장=최창호)는 방중 '실습기자제 구입 내역'을 공개했다.

△분과대-어학실습실 2칸 설치 △이과대-화학과 실험대 교체 △사파대-신문방송학과 실습용품 구입 △분과대-독서실 집기 △경상대-OE과교과, 교육용구 △생자대-현미경의 실습용품 △공과대-건축공학과 CAD실습용 구입 △사파대-교육매체센터 설치△예술대-방송용 카메라 및 실습용품등 20여억 가량의 집기 구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출판부, 한국출판문화대상 출판상 수상

## 임기중 교수의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

### 비문판독·역사연구에 귀중한 자료

출판부(부장=백우섭)가 지난 9년 11월에 발간한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이 한국출판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본교 국문과 임기중 교수가 지난 90년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93년 중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중·일 3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광개토왕비 초기탁본(석회질)로 변조하여 탁본을 내기 이전 능비본래 모습의 탁본 4종을 국내판 크기로 축소하여 만든 책이다.

'광개토왕비초기탁본집성'은 세워진지 1천4백여 년이 지난 광개토왕비의 원석에 대한 비문자료집이며 90년에서 93년 사이 학계에 처음 발표된 '고구려호태왕비집성'을 중심으로 초기탁본으로 보여지는 4종 △회화 이전의 진고구려호태왕비 이용정탁본(전4쪽) △고구려평안호태왕 묘지비문(전12쪽) △고구려평안호태왕 묘지비문부의 보원탁본(전12쪽) △고구려호태왕비(전12쪽) 등 4종에 특성이 두드러진 석치가목본·목각본·쌍구본·조규류의 자필고본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의미는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1천4백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 새 자료를 찾아내고 그 동안 전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을 우리민족이 중국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처음 주체적으로 이런 책을 만들어 냈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출판문화대상 사료 부문에서 출판상을 받았다.

한편, 출판부 백우섭 부장은 "본서는 석회질 이전 능비 본래의 탁본을 모은 것으로써 1백여년만에 잘못된 비문판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이번에 한국출판문화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본교 국문과 임기중 교수가 지난 90년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93년 중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중·일 3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광개토왕비 초기탁본(석회질)로 변조하여 탁본을 내기 이전 능비본래 모습의 탁본 4종을 국내판 크기로 축소하여 만든 책이다.

'광개토왕비초기탁본집성'은 세워진지 1천4백여 년이 지난 광개토왕비의 원석에 대한 비문자료집이며 90년에서 93년 사이 학계에 처음 발표된 '고구려호태왕비집성'을 중심으로 초기탁본으로 보여지는 4종 △회화 이전의 진고구려호태왕비 이용정탁본(전4쪽) △고구려평안호태왕 묘지비문(전12쪽) △고구려평안호태왕 묘지비문부의 보원탁본(전12쪽) △고구려호태왕비(전12쪽) 등 4종에 특성이 두드러진 석치가목본·목각본·쌍구본·조규류의 자필고본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본교 국문과 임기중 교수가 지난 90년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93년 중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중·일 3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광개토왕비 초기탁본(석회질)로 변조하여 탁본을 내기 이전 능비본래 모습의 탁본 4종을 국내판 크기로 축소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본교 국문과 임기중 교수가 지난 90년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93년 중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중·일 3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광개토왕비 초기탁본(석회질)로 변조하여 탁본을 내기 이전 능비본래 모습의 탁본 4종을 국내판 크기로 축소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본교 국문과 임기중 교수가 지난 90년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93년 중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중·일 3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광개토왕비 초기탁본(석회질)로 변조하여 탁본을 내기 이전 능비본래 모습의 탁본 4종을 국내판 크기로 축소하여 만든 책이다.

한편, 출판부 백우섭 부장은 "본서는 석회질 이전 능비 본래의 탁본을 모은 것으로써 1백여년만에 잘못된 비문판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이번에 한국출판문화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 조기졸업 신청 13일까지

### 전과결과 발표 ... 총 1백21명

학과(과장=안준옥)는 오늘(10일)부터 13일까지 조기졸업신청자접수를 각 단과 교과과에서 받는다. 조기졸업의 자격요건 대상자는 7학기를 통학한 자로서 이번에 수강하여 1백40점 이내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평균성적이 4.0이상이어야 한다. 구 교과과정을 받는 4학년학생들은 대상으로 복수전공 신청을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학과에서 받는다. 올 9월 졸업예정자로 복수전공시 55학점을 더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장은 복수전공 졸업장과 함께 수여된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전과결과에 의하면 전과신청을 한 총 1백40명중 1백21명이 합격하였다. 전과인원을 살펴보면 △한국어문학부=8명 △영어영문학과=3명 △일어일문학과=4명 △인문학부=1명 △자연과학부=1명 △법학과=11명 △사회학과=12명 △행정학과=2명 △경영학과=1명 △회계학과=1명 △경상학과=6명 △전자전기공학부=4명 △토목공학과=1명 △건축공학과=2명 △건축·토목공학부=21명 △컴퓨터공학과=1명 △산업공학과=1명 △공과계열=14명 △국어교육과=4명 △역사교육과=1명 △언어영상학부=9명 △이부영문학과=3명 △이부영상학부=3명 △신문화학과=1명

### 생자대, 선거공고

제29대 생명자원과학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가 공고됐다. 선거일정은 오늘(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1일=오후 5시에 불미팅 및 후보자 사전활형 △12일=선거공보 및 선거운동 시작 △18일=유세 △19, 20일=투표로 이어진다.

## 학·전·무·대

### 미지수 정정

○... 6일부터 8일까지는 수강정정기간. 자신이 신청한 강좌도 확인하고, 정정도 할 결 수강신청확인안 및 정정원을 받으려 학생회실로 갔건만... 카드는 운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지지만 차치하고 있었다는데. 이런저런 얘길 하면 중 한 학생이 "야, 너 수업 안 들어가?" 하자 그 학생을 "내가 뭘 신청했는지 알아 들어가든지 하지."

### 학번 = 양?

○... 현역인 재학생, 재수한 신입생. 재수를 해서 들어온 새내기 중 몇몇은 '년 산배?' 나하고 같은 나인걸 댐.'라고 생각하는지 산배 보고도 그냥 친구 부르듯 한다는 데... 후배에게 친구 취급 받는 산배.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이에 한 산배, 후배에게 말하길 "대해서 학번 물어보지 나이를 어 물어보지?"

### 분식값 동결!

○... 얼마전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동국관 휴게실 그루터기. 오랜만에 찾았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이유인즉 분식값이 8백원선에서 1천2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는 데.

가계에 불만이 있지만 배고픈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채울 수 밖에... 이에 한 학생 등 "분식값 5%도 동결하러는데 분식값 30%안상이 댐 말이지?"

### 신뢰도와 하늘

○... 검찰이 자기반성과 조직 개혁을 공식 발표. 최근 한보사건의 열렁뿔렁 수사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데.

과연 검찰은 신뢰도를 하늘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한 시민 고개를 저으며 "음, 하늘이 무너지지않군!"

## 학술문화관, 서울시 건축상 수상

### 공간배치탁월...은상작품으로 선정

본교 개교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이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시 우수 건축물 심사에서 은상 수상작품으로 선정돼 상장과 기념동판을 수상했다.

서울시내의 건축물 중 '85~'90에 사용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71조에 근거하여 지난 79년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간·상 건축 설계사무소가 설계하고 김강중합건설(주)이 시공한 본교 학술문화관이 은상작품으로 선정된 이

유는 첫째, 기존캠퍼스의 질서체계인 기존배치측과 외부의 자연요소를 삼입하고 고우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처리하여 활동성을 일차적으로 수용한 점과 둘째, 평면조형은 단순사각형을 기능에 맞게 분절 및 형태변화를 유도하여 공간감을 조절하고 인면조형은 수평선 주조속에 수직선을 삼입하여서 다양한 변화를 유도한 점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수상작품들은 오는 11일 까지 세종문화회관 제 1전시실에서 전시한다.

## 신방과 실습실 개설 보고회 및 특강

### 송승장 참석...자기실력배양에 노력할 것 당부

신문방송학과(학과장=김용호·신문방송학)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습실 개설 보고회 및 특강을 열었다.

보고 송승주(월화)총장, 이상현(경향신문) 사회과학대 학장 등 인사들과 여러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문제작실습 기자재와 방송제작실습 기자재 등 지난해 9월에 마련한 신방과 실습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자체제작한 홍보영상을 방영이 있었다. 송석구총장은 축사에서 "현재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이 그리

많지 않다"며 "무엇보다 1차적으로 자기실력 배양에 노력해 언론매체에 진출해 주기 바란다"고 학과생들에게 학문에 힘 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김용호 학과장은 "학과단위의 행사에 총장이 참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날 행사에 의미를 높였다.

보고회가 끝난 후 '교과만족 경응을 위한 홍보 전략'이란 주제로 아남그룹 기획총장 김이환 전무이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 청년 만해의 기개로 자주 동악을 노래하라!!

'97 등록금 동결과 자주 학원 건설을 위한 투쟁 선포식  
일시 : 3월 13일 오후 2시



등록금 납부 연기!  
민족 동국 29대 자주적 총학생회

- 1) 학사행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우
- 2) 학교 식당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우
- 3) 등록금을 동결시켜야겠다는 학우
- 4) 전공선택권을 보장 받아야겠다는 학우
- 5) 수강신청에서 피해를 입은 학우

이러한 학우들은 의지와 지혜를 모음시다!!  
모이자! 도서관 앞으로!!

##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97학년도 교육실습에 따른 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래

1. 대상자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실습기간 : '97. 4. 7(월) ~ 5.3(토) - 4주.
3. 실습비 : 육단오천원(W65,000)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4. 접수기간 : '97. 3. 11(화) ~ 12(수)일.
5.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6.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 '97. 3. 19(수). 17시.
7. 오리엔테이션 장소 : 본관 중강당.

※ 교육실습과 관련한 명찰 및 실습일지 등의 사전 제작을 위하여 실습생은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바람.

## 사범대학장

## 신규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일	행정 1	반	기	숙	직
일	행정 1	반	기	숙	직
행정 1 (정규)	서울	서울	서울	경주	서울
2. 전형방법 : 필기시험(영어, 논문)과 면접(시험 당일 실시)
3. 제출서류
  - 가.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포함) 각 1통
  - 나. 최종학교 전학원 성적 증명서(대학교 포함) 1통
  - 다. 불교도 신봉증(본교 소정 양식) 조계종 산하 사찰 신도증명서 1통
  -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보유증명서(해당자) 각 1통
  -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서울 캠퍼스 총무과(TEL 02-260-3063~6) 경주 캠퍼스 총무과(TEL 0561-770-2063~4)
  - 6. 시험일시 및 장소 : '97. 3. 22(토) 09:50 본교 서울 캠퍼스 교시강 X 경주군부 지원자도 서울 캠퍼스에서 필기 시험 및 면접 시험을 실시함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숭배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권하여념으로 한다.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영상매체비평**  
영화-트레인스포팅

**마약에 몰입한 청소년,  
이를 방치한 사회의 심각성 제기**

**사회 비판성 짙은 영국 영화의 걸작**

정재형  
(연극영상학부 교수 영화평론가)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 직결되는 영화가 있다면 스탠리 큐브릭의 <클라위크 오렌지>와 알렉스 코스의 <시드와 낸시>다. 다같이 마약과 청소년의 정서, 문화를 다루었다는 점 외에도 이들에게 공통점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건 젊은이들의 순수하고 분노, 그에 상반되는 기성사회의 모순과 억압구조이다.

영국영화는 사회비판의 강도에 있어서 영화역사상 그 계보가 깊은 사실이다. 50년대의 프리시메마 이후로 영국의 사회비판영화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세 지역을 다른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가 영국영화를 가볍게 봐 넘길수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 영국의 사회비판영화는 한편 한편이 보석과도 같은 영화들이다.

영국 미국의 주류 할리우드 오락영화 가운데서도 영국영화가 제기한 사회비판적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감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독은 도미니크 세나(Dominic Sena)인데 그는 작품<칼리포니아>와 최근작<제널 오브 머더>에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범죄와의 갈등 등을 제기하면서 현행 사회의 비명 교정제도 혹은 법이 갖는 부조리함, 모순, 불능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오락영화로만 제작되는 할리우드의 관행에서조차도 요즘 유행하는 감옥, 사형수 소재의 영화들을 보면 미국의 예술가들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동시대 인식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느



질 수 있다. 인성과 법(제도)의 갈등은 이제 그냥 넘길 수 만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 영화의 소재는 마약에 상습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표면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우리는 잘모르던 마약중독 세대의 현란함에 그냥 무작정 시선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속의 한 인물이 번기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환상적인 장면은 영화사상 명장면 연출로 평가받을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강점은 표면적인 이야기 흐름과 결말 혹은 뛰어난 영상연출의 감각보다도 이 영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일 것이다. 감독의 시선은 이 영화를 오히려 거꾸로 읽기를 권유할 지도 모른다. 영화 속의 인물

에 몰입되는 순간 우리 관객들은 그 이상한 인물들에게 동화되어 그들만큼 한없이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엄격한 사회의 위선과 무능력함을 읽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감독 내내 보일듯 말하듯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기성세대로부터 상처받고 서로간에 상처를 주고 마찰내 절망의 끝까지 달려간 이들 소외된 젊은이들은 바로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자화상일 것이다. 허를 찌르면서 단지 동정의 시선을 던지는 것만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무력하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고 분출하는 젊음의 광기는 두손으로 막기에는 너무나 벅찬 흐름이다. 그들에게 더 큰 바다를 보여주기 전에는 어떤 몸짓도 거그러란 것을 그들은 안다.

**메아리**  
**세탁소 손님**

▲불과 10년전만 해도 형제가 여럿인 집에서 옷을 풀림해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겹옷은 불린다고 신발이며 속옷까지, 낱아서 떨어지면 기워서 다시 입혔고 작아서 몸에 꼭 걸 정도가 되어야 동생에게 되풀이하던 시절. 한 번쓰고 버리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어쩌다 이따금씩 집에 갔다가 옷이라도 한벌 사다주면 밤새 머리맡에 걸어두고 그 흥분으로 잠 못드는 일도 허다했다. ▲요즘 세탁소는 한지붕 세가족의 세탁소 이미지를 벗은 지 오래다. 옷수선을 맡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법만 알면 세탁소사장님으로서 충분히 OK. 옷을 사입는 것도 과감하고 옷을 버리는 것도 과감한 손님의 구미에 맞게, 세탁한 옷을 번지수만 제재로 확

인해 배달하면 된다. 자신의 체형을 탓하기 보다는 옷의 디자인이나 재질을 핑계로 옷만 바꿔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손님 때문에 세탁소 사장님은 신바람이 난다. ▲재입 4년을 갖 낡긴 김대통령은 5일 개가를 합하면 모두 21번째 개가를 손질

했다. 이번 개각의 이유는 '한보사건'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세탁소주인은 그 손님이 외출을 하기위해 옷을 갈아입은 것 뿐이라는 것을 안다.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입은(?) 셔츠, 줄리, 경제 부흥리만도 여섯 번까지지만 20일만에 경질된 서 전내무장관은 안스럽기까지하다. 그 손님은 갖은 개각으로 정책결정은 과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결의 일관성 유지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세탁소 사장님은 이제 불안해진다. 번덕이 심한 그 단골 손님이 수선을 풀게되고라도 이전 세탁도 맡기지 않게 되어서, 한 번에 샀노라 입었노라 버렸노라를 반복할까봐 오늘도 세탁소 사장님은 고민에 빠진다.

◇ 립싱크 퇴화현상 진단

**구시대 유물로 전략...화려함보다 가슴 적시는 노래 기대**

H.O.T.에 열광하는 10대들. 화려한 율동, 현란한 조명, 눈에 띄는 의상 등 그들은 상업주의가 낳은 인위적 스타이다. 90년대 이후 댄스음악이 TV, 음반 시장을 석권하며 가요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한국 가요계. 노래는 하지 않고 입만 뿡긋기었던 댄스가수들이 이제는 춤도 추고 노래도 라이브로 불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립싱크'는 사절 라이브는 '환영'이라는 일직을 각 방송사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KBS 가요톱10'에서는 립싱크를 하는 가수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테이프 롤이 가는 표시를 하고 있다. 그것은 곧 립싱크 가수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KBS에 이어 MBC와 SBS의 가요순위프로그램에서도 립싱크를 사용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격렬한 안무와 무대 위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립싱크를 어필

수 없이 한다지만 이제는 팬들도 립싱크 가수를 철저히 외면한다. PC통신에서 립싱크 토론방이 생기고 각 방송사 음부즈맨 코너에 격려 전화가 쇄도는 것을 보더라도 립싱크 가수의 위기의 시대는 온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톰스타 휘트니 휴스턴이 91년 슈퍼볼 결승전 사전행사에서 미국 국가를 립싱크로 불러 여론의 비난을 거세게 받았고 현재는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올, 토니 브랙스톤 등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실정을 봐도 립싱크의 시대는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립싱크가 사라진 한국 가요계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우선, 진정한 자기 음악세계를 고집하며 콘서트와 라이브 무대에 승부부거는 록, 발라드 가수들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또한 이소라, 박미경 등 여가수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있다. 댄스가수들의 춘추전국 시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가 기를 펴고 살 것이라는 것이다. 영부세처럼 입만 뿡긋거리는 립싱크 가수. 이제는 립싱크가 구시대의

유물로 치닫고 있다. 노래를 당면한 라이브로 불러야 하는 것이 가수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가수와 팬들 모두 깨닫고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가슴 적시는 노래 한 마디를 기대해 본다.

**"대학문화는 술로 시작한다?"**

**술문화 재조명 필요성... '필수' 아닌 '도구'로 자리잡아야**

지난 입학식 행사가 끝난 후 한내 기들이 새내기들을 챙기기 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듯 PC와 자료들을 들고 "OO학부 모여라"라고 외쳐 대는 소리는 맨저 정경계 들린다. 서로의 얼굴은 생소하지만 그 소리에 이끌려 모여드는 새내기들은 모든 것이 새롭지만 한 모양이다. 그 후 그들은 선배들이 잔디밭에 미리 준비해 둔 술자리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 이처럼 대학을 술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대학 생활 중 녹두 거리(서울캠)와 성간동(영주캠)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볼 때 '대학문화=술문화'라고 공식화해도 될

정도로 술의 영향력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80년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술에는 삶이 있고, 창춘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한 한결같은 여조에는 '대학과 사회'라는 프리프가 붙어 있으며, 쪼뼛 나온 대학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발과 열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학 속에서 술의 역할은 서로 다른 주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는 고리가 되었으며, 대학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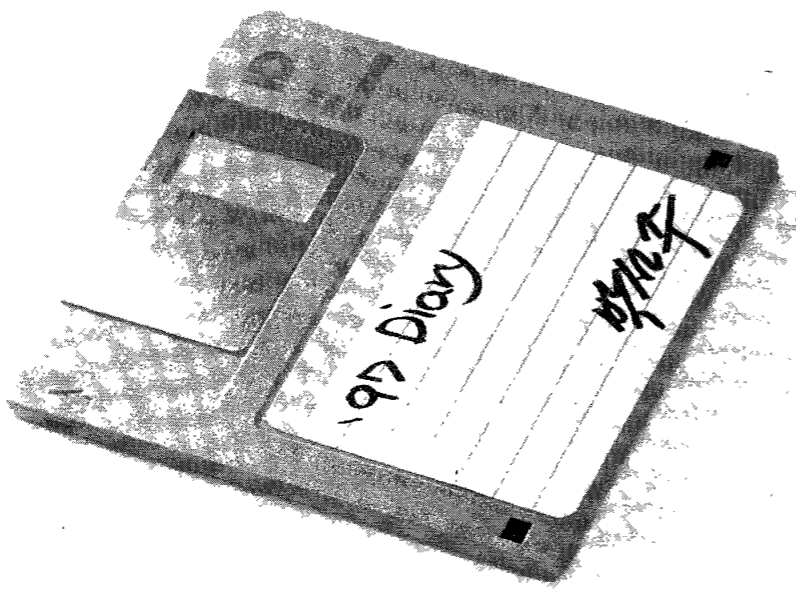
이는 맥스 체전 등의 체육 행사, 신명나게 펼쳐지는 풍물패의 공연 속에서 마시던 한잔의 탁주는 서로간의 신뢰와 정을 나누는 한바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대동제 등의 축제 속에서 보여지는 술의 문화는 다름없다. 술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한다. 본교주변의 유흥업소들은 현란한 조명으로 X세대라는 기질의 새내기들을 유혹한다. 특히 요즘같이 선배들과 동기들의 유대 관계를 확립하는 시기이던 술이란 새내기들의 필수품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이

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선 술은 단순히 사교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잔을 돌리는 모습, 술잔을 들면 한번에 쭈어야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어느 정도 강제적이고, 독재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과연 새내기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 시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동지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셨던 술 쪼뼛 나온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 마셨던 술. 그리고 지금 단순히 사교적인 면만으로 새내기들의 순수한 정신을 술로 멀뼛이는 그런 술문화는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신용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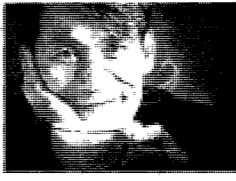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컴퓨터와 마주 앉아 쓰는 일기. 일기 쓰는 시간마저 아끼려는 듯 두 손으로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리며. 이런 일기라면 남에게 들릴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쉽겠군요.

**"펜은 Keyboard보다 향기롭다"**



깊은 밤, 커피 한잔을 준비해 두고 하루를 돌아보듯 펼쳐드는 일기장. 하얀 일기장을 한줄 한줄 채워가는 동안 방안 가득 커피향이 퍼지고 그렇게 하루가 마감되어 갑니다. 문득 지난 날을 돌아켜보고 싶을 때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두고 한장 한장 넘겨보는 느낌은 분명, 커피 한잔없이 컴퓨터에 새내려간 일기와는 다를 테지요.

한잔의 커피로 충만해지는 생활. 동서식품이 가꿔갑니다.

-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 동서 커피문학상 ●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 동서음악제 ●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 국군 부대 자매 결연

